

300-5-122.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4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鄭泰植은 1934년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좌익문헌을 탐독하고 공산주의에 공명, 조선의 공산화를 희망한 결과 李載裕와 會晤하여 조선독립 공산화운동에 기여하고자 협의·방조하였다. 權榮台와 會同하여 赤色노동조합 결성을 협의한 바 있고, 자금을 모금하였으며, 조선독립 공산화선동 내용의 팜플렛을 받아 여러 사람에게 交付, 공산화를 선동했다.
- 韓六洪·金大容은 좌익서적을 탐독하였고, 공산주의에 공명하여 조선독립 공산화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하였고, 權榮台는 모스크바 노력자공산대학을 수학하고 赤色노동조합 조직목적으로 入鮮하였다. 權榮台는 鄭泰植과 협의, 文化活動으로 코민테른 집행위 13회 총회의 테제를 번역, 인쇄·반포의 협의에 동조하였으며, 赤色노동조합 조직·촉진 목적의 불온문서를 인쇄, 배포했다. 朴鼎斗·李元奉 등도 이러한 활동을 하다 검거되었다.
- 1934년 7월 9일 경기도경은 權榮台 외 53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吳南根 외 12명에 대한 본적조치와 李元鳳 외 2명에 대한 前科照會가 있었다.
- 檢事の 被疑者 신문조사는 1934년 7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1회 신문조사는 鄭泰植·李明新·韓六洪·韓成澤·金大容·安秉潤·吳南根·金月玉·崔溶達·朴文奎·李元鳳·金普成·徐升錫·權榮台·安鍾瑞·朴鼎斗·金喜鎮·崔慶玉·白同赫·姜晦求·金鎮煥·高宗主·權泰錫 등에게 진행되었으며, 동일 崔慶玉 등 22명에게 西大門刑務所 在監決定이 있었다. 7월 13일 檢事が 京城地方法院 刑事裁判長에게 鄭泰植 외 52명의 記錄送付를 의뢰하였고, 14일에 記錄이 法院에서 檢事正에게 送付되었다. 동일 鄭泰植 외 52명의 差押이 집행되었다.
- 1934년 7월 13일부터 檢事の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3일 鄭泰植, 14일 李明新·金月玉, 16일 韓成澤·金大容·安秉潤, 17일 韓六洪·李元鳳·金普成·徐升錫·崔容達·朴文奎·吳南根, 18일 權榮台·崔慶玉·金喜鎮·安鍾瑞·朴鼎斗·高宗主·姜晦求·白潤赫·金鍾煥·權榮錫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 1934년 7월 19일 鄭泰植 외 12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사건의 豫審請求가 있었다. 7월 31일 崔慶玉 외 7명의 본적조치가 있었으며, 鄭泰植 외 12명의 구류갱신 결정과 송달서가 발부되었다.
- 1934년 11월 7일 豫審判事の 被告人 訊問調査가 鄭泰植·韓六洪·金大容 등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11월 8일 金普成·安秉潤·權榮台·安鍾瑞·徐斗錫, 9일 李明新·朴鼎斗·金喜鎮·崔慶玉·李元鳳 등에게 실시되었다. 9월 30일 元澤淵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12월 4일 金大容의 陳情書가 제출되었으며, 金炳魯·安炳潤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되었다.
- 12월 26일 鄭泰植 외 6명의 구류갱신 결정이 있었고, 韓六洪 외 6명의 在監決定과 증서가 송달되었다. 1935년 1월 8일 許均에 대한 被告人 訊問調査가 있었고, 22일부터 예심판사의 2회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2일 鄭泰植, 23일 韓六洪·金大容·金普成, 24일 安秉潤·權榮台·安鍾瑞·徐升錫·李元奉, 25일 李明新·朴鼎斗·金喜鎮·崔慶玉 등에게 실시되었다. 2월 22일 永島雄藏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許均의 구류갱신 결정이 있었다.
- 1935년 3월 18일 鄭泰植의 保釋申請, 3월 23일 韓六洪의 保釋申請이 있어 檢事の 意見を 구하였으나, 불허의 견으로 不許決定이 있었다.